

S-OIL MAGAZINE
APRIL VOL.389



DOMESTIC



소치 동계올림픽 포상금 전달



가족 이야기



표지이야기

9가지 전사전략과제 중 브랜드 마켓 중심의 내수 점유율 제고(Brand market driven share gain in domestic market)를 통해 회사의 성공적인 미래를 눈앞의 현실로 바꾸어나가는 진주지사를 소개합니다.
(관련기사 17~21쪽)

통권 제389호

발행일 2014년 4월 3일

발행처 에스-오일주식회사 광고팀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92(공덕동 471)

홈페이지 www.s-oil.com

E-Mail sabo@s-oil.com

편집·디자인 (주)디자인소호 02-514-5164

인쇄 (주)성환인쇄 02-2273-0583

04

주요소식

소치 동계올림픽 포상금 전달
증류탑 폐열활용 발전사업 협약
해상급유사업 안전강화 파트너십
마케팅 공모전

전사 사회공헌 관계자 워크숍
해양오염 방제훈련
신입사원 부모 공장 초청
단신



17

최강 팀

국내시장 제패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답입니다
진주지사



22

소식 모아보기

회사 수익 창출에 앞장서는 영업인이 되겠습니다
아스팔트 시장은 우리가 선점한다

24

두런두런 수다방

산행으로 이어가는 정겨운 인연
큰 세상 향한 첫걸음 우리만의 여행

26

햇살나눔

햇살나눔 캘린더
중부지역본부 및 강남·강북지사 봉사활동
햇살나눔 단신



32

No.1 주유소

사랑방 같은 따뜻한 주유소가 되겠습니다
전북 순창 사랑주유소



34

가족 이야기

희망 키워 행복 만드는 가족입니다
수소3과 이정민 사우 가족



38

야호! 축제다

황홀한 봄의 정경 속 타박타박 걷는 즐거움
전남 완도군 '청산도슬로우견기축제'

40

걷고 싶은 길

평화와 통일 염원하며 걷는 'DMZ 녹색생명 길'
평화누리길-김포 1구간

44

나의 롤모델

한계를 넘어 최선을 다하는 것이 혼신이다 <방송인 유재석>

46

열린 서재

나를 찾아 떠나는 유럽 감성여행 정여울 <내가 사랑한 유럽 TOP 10>

48

마음 읽기

유희과 탐닉의 동의어 '쇼핑(Shopping)' <쇼핑 중독>

50

독자광장

얼음 위 뜨거운 도전

고맙습니다

소치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 포상금 전달



우리회사가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선전한 메달리스트들에게 포상금을 전했다. 빙상종목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이번 포상금 전달은 올림픽 개막 전인 지난 1월 말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동기 부여와 격려 차원에서 소치 대회 입상 성적에 따라 금메달 2천만 원(단체전 선수 각 1천만 원), 은메달 1천만 원(500만 원), 동메달 500만 원(300만 원)의 포상금을 전달하기로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소치의 영웅들에게 포상금 전달

전달식은 3월 19일 신라호텔(서울시 중구 동호로)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나세르 알 마하서 CEO와 김재열 빙상연맹 회장을 비롯해 빙상종목 국가대표 선수와 가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상금 전달을 통해 우리회사는 쇼트트랙

여자 1천m와 3천m 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2관왕에 오르고 500m에서도 동메달을 차지한 박승희 선수(화성시청)에게 3천500만 원을 전달했다. 심석희 선수(세화여고)는 쇼트트랙 여자 3천m 계주에서 금메달, 1천500m와 1천m에서 각각 은·동메달을 획득함에 따라 포상금 2천500만 원을 받았다.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올림픽 2회 연속 세계 제패에 성공한 이상화 선수(서울시청)에게도 2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쇼트트랙 여자 3천m 계주 우승의 주역인 공상정(유봉여고) · 김아랑(전주제일고) · 조해리(고양시청) 선수에게 각 1천만 원을 포상했다. 또한 김철민(한국체대) · 이승훈(대한항공) · 주형준(한국체대) 선수는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팀추월 경기 은메달 획득으로 각 500만 원을 전달받았다.

—
우리회사는 소치 동계올림픽에 참가해 메달을 딴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포상금을 전달했다. 선수 및 가족, 빙상연맹 관계자들이 참석한 전달식에서 나세르 알 마하서 CEO는 선수들을 격려하고 4년 뒤 열릴 평창올림픽에서 선전을 기원했다.

글 박수지(홍보팀)

사진 전부순



이와 더불어 6회 연속 올림픽 출전을 기록한 이규혁 선수(서울시청)와 종양 제거 수술 뒤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쇼트트랙 유망주 노진규 선수(한국체대)에게도 격려금 각 1천만 원을 전했다. 마하서 CEO는 포상금 전달식에 참석한 선수들에게 “엄청난 노력과 열정으로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정상에 오른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4년 뒤 대한민국에서 개최될 평창올림픽에서도 자랑스러운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한다”며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밝혔다.

앞서 동계올림픽 기간 중 마하서 CEO는 러시아 소치를 방문해 한국선수단에 격려금 1천만 원을 전달하고 이상화 선수의 경기를 직접 응원한 바 있다. 🌈



폐열로 전력생산

환경을 생각합니다

증류탑 폐열활용 발전사업 협약

온산공장 증류탑에서 나오는 폐열을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증류탑 폐열활용 발전사업 협약이 체결됐다. 이로써 우리회사는 이산화탄소 절감을 통해 환경을 지키고 지역 사회 에너지 수급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글 심규역(대외업무팀)

사진 박석수(대외업무팀)

자료제공 이수연(대외업무팀)



우리회사가 폐열을 활용한 발전사업으로 미래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이어간다. 우리회사는 지난 3월 5일 울산시청에서 울산시를 비롯해 (주)경동도시가스, 삼성에버랜드(주)와 '증류탑 폐열활용 발전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박봉수 수석부사와 박맹우 울산시장, 송재호 경동도시가스(주) 대표, 전태흥 삼성에버랜드(주)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식은 협약체결 경과보고, 협약서 낭독과 서명·교환,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증류탑 폐열활용 발전사업은 석유화학공정 중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해 스팀을 생산하고 이로써 스팀터빈발전기를 가동해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회

사는 사업부지와 열원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지 변경과 제반 인허가 처리 등을 지원하는 울산시, 기술을 담당하는 삼성에버랜드(주), 투자·유지관리를 맡는 경동도시가스(주) 등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이 사업으로 발생하는 전기생산량은 가정집 5천 400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연간 6만1천 톤의 이산화탄소 절감효과로 회사가 추구하는 환경경영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재생자원 활용에 관한 대외 협력망을 구축해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활용을 경제적 파급효과로 연결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



파트너십 강화로

해상안전 지킵니다

해상급유사업 안전강화 파트너십 협약

해양오염 사고 방지와 안정적인 유류 관리를 위한 파트너십 협약식이 개최됐다. 우리 회사는 해상급유 협력업체들과 함께 상생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비전을 실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글 윤경섭(해외운영팀)
사진 전부순

우리회사가 해상 유류관리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급유 협력업체와 '해상급유사업 안전강화를 위한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3월 21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협약식에서 류열 수석 부사장은 김성길 HBC(주) 회장·윤진현 동광유업(주) 대표이사와 만나 협약서에 서명하고 해상급유 안전강화에 한뜻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은 회사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bunker(선박연료공급)와 관련해 해상 유류 안전관리에 관한 선제적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우리회사와 급유협력업체들은 파트너십을 통해 안전강화를 위한 실천의지를 굳건히 다지고 상호이익이 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해양오염 사고로 인해 유류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회사는 이번 파트너십 협약으로 급유협력업체와 신뢰에 기초한 상생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해상급유사업의 중장기적 비전을 건실하게 달성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젊은 생각이

브랜드 가치를 새롭게 합니다

마케팅 공모전

4개 분야에서 392팀이 성황리에 참가

올해 마케팅 공모전인 '에스-오일 브랜드 어워드' 영예의 최종 수상자들이 3월 4일 본사 대강당에서 가려졌다.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여 동안 '세상을 움직이는 아이디어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4회 마케팅 공모전에는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캠페인 △보너스카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에코 프로모션 등 4개 분야에 총 392팀, 9백여 명의 대학생이 응모해 소통의 기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우리 브랜드 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열정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했다.

시상식 날 현장에는 류열 수석부사장, 신동열 부사장, 신혁 전무와 유창조 교수(동국대), 박용진



우리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마케팅 공모전이 개최됐다. 3개월여 동안 900여 명이 참가한 다양한 공모작품들 중 10개 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글 김성준(고객개발마케팅팀)
사진 전부순

상무(제일기획) 등 심사위원단을 비롯해 수상자 전원이 참석했다.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선발된 최종 수상자는 총 10팀으로 대상에는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캠페인 부문의 김정환 학생(명지대)이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엔 '팀 951'팀 등 3팀, 우수상엔 '독기다이'팀 등 5팀, 제일기획 특별상엔 '브릴리언트(Brilliant)'팀이 선정됐다.

대상을 받은 김정환 학생은 '모든 차는 기름먹기에 달렸다'는 주제로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독창성과 완성도에 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마케팅 공모전 수상자들에게는 총 1천700만 원의 상금과 상패가 주어지며,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 팀은 향후 입사 지원을 할 경우 우대한다. 🌻

2014 마케팅 공모전 수상팀

상	팀명	작품명
대상	착한식당	모든 차는 기름 먹기에 달렸다!
최우수상	구타이 Team 951 골든엘로우	포인트 결합 서비스, 'Let's tie' 달려라 구도일/도일이와 대화해요/도일이와 스트레칭 차내 적정온도를 제시해주는 'Yellow Tag'
우수상	독기다이 당연하조 C Me Again 구도일 CPR Cold Conditioner	'GOODOIL Weekend Family Card' Simple/Stylish/Special Value 카드 'C U Again' : Convenient/ Useful/ Authentic 위젯 및 사운드태그 기술 활용방안 '환경을 생각한다면 에어컨을 강하게 틀어주세요'
제일기획 특별상	Brilliant	구도일과 함께하는 '좋은기름, 좋은습관'



새로운 의욕으로

햇살나눔 이어갑니다

전사 사회공헌 관계자 워크숍

사회공헌 활동으로 햇살나눔에 관계하는 임직원들이 '전사 사회공헌 관계자 워크숍'에 모였다. 기업 사회공헌 동향과 사례 발표, 강연 및 미술체험 등 다양한 행사들로 참가자들의 열띤 반응을 얻었다.

글·사진 전부순

2014년 전사 사회공헌 관계자 워크숍이 지난 3월 12~13일 하이서울유스호스텔(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에서 열렸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이 행사는 사내 조직단위에서 사회공헌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기업 사회공헌 동향을 전하고 자원봉사 관련 교육으로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해 더 나은 사회공헌 전개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다. 올해 워크숍에는 본사와 공장, 지역본부·지사·저유소에서 사회공헌 활동에 다양한 역할로 관여하는 임직원 70여 명이 참가했다. 워크숍 첫날에는 기업들의 사회공헌 사례발표와 강연, 미술체험 등이 진행됐다. 사례발표 순서에는 최영우(☺)도움과나눔 대표에 이어 주경자 한글과컴퓨터 과장, 이승주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팀장, 김선정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 팀장이 차례로 나서 기업 사회공헌 동향과 사례, 복

지기관과 연계한 기업 사회공헌 활동 등을 소개했다. 이어 사랑의열매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방송인 현영씨가 특강 순서에 초청돼 삶 속에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기부와 나눔에 대해 뜻깊은 이야기를 들려줬다. 이날 저녁식사 뒤에는 미술사 조웅씨가 이끄는 체험교육이 진행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튿날에는 주유소를 거점으로 시행 중인 행복나눔N캠페인 사업과 공장 봉사단 운영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급여우수리 나눔의 지원상황과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 우수 자원봉사자 및 부서 시상으로 지난 한 해 나눔에 앞장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창재 부사장이 시상상에 나선 가운데 개인과 정기봉사팀, 팀, 지사 등 조직단위로 우수 자원봉사상이 주어졌다. ☺S

우 수 자 원 봉 사 자

본사	김규민(조직문화팀) 박종태(고객서비스팀) 구기청(홍보팀) 정일(고객서비스팀) 박혜영(관리회계팀)
공장	류종우(촉매연구팀) 권영구(계전부 전기과) 김병수(노사협력팀) 구종덕(유행생산부 윤활유1과) 변희영(안전보건부 안전기획과)
지사	최영천(남양주지사) 김석배(전주지사) 정재학(청주지사) 조성아(고양지사) 최진희(남양주지사)

우 수 자 원 봉 사 부 서

본사정기봉사팀	생명의전화복지관(경로식당 생신잔치)	공장	건설팀 대외업무팀
본사	네트워크개발팀 대리점영업팀	지사	고양지사 청주지사



빈틈 없는 훈련으로

해양환경 수호합니다

해양오염 방제훈련

만일의 해양 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방제 훈련이 실시됐다. 실제 상황을 가정해 4시간 여 동안 펼쳐진 훈련을 통해 발 빠른 초동 대처와 상황 전파 요령을 터득하며 해양환경 오염에 대비한 굳건한 대응체계를 갖췄다.

글 이수연(대외업무팀)

사진 김창완(항무방제과)

자료제공 심규익(대외업무팀)·박평수(안전관리팀)



해상 기름유출 사고 소식이 사회적으로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해양 오염사고에 대한 초동 조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때맞춰 우리회사는 원유 유출사고에 대비해 3월 27일 해양오염 방제 훈련을 펼쳤다. 전사 리스크 대응 훈련의 일환인 이번 훈련은 해양 오염사고를 가정한 상황에서 신속한 초동 대처와 상황 전파를 연습함으로써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훈련은 상황을 엄밀히 가정해 이뤄졌다. 30만 톤급 원유선이 우리 해상계류시설(SPM)에 계류해 원유하역 작업을 하던 중 기관 고장이 발생하면서 근처에 표류하고 있던 어선과 충돌한 것으로

가정했다. 이때 원유선에서 해상계류시설로 연결된 플로팅 호스(Floating Hose)가 파손돼 원유가 해상으로 누출된 가상 상황을 설정하고 상세한 대응 시나리오를 수립했다.

이번 훈련에는 온산공장을 거점으로 울산해경, 해양환경관리공단, 예선업체 등 유관기관·업체가 직접 참여했다. 공동 방제작업을 펼치는 모든 과정에 대해 모의도상훈련을 진행하면서 인력 100여명과 방제선 6척, 예인선 3척, 순찰선 3척, 기름막이(oil fence), 유수분리기(oil skimmer) 등을 투입한 가운데 4시간여 동안 훈련을 지속해 실제 상황을 방불케 했다. 



신입사원과 부모님

새로운 가족을 환영합니다

신입사원 부모 공장 초청

회사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신입사원들이 미래 꿈의 터전인 공장에서 부모님을 맞이했다. 지난 3월 15일 신입사원 부모 공장 초청행사 개최에 따라 생산직 신입사원 37명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부모 등 가족 75명이 공장을 방문했다. 이 행사는 신입사원 부모와 가족이 회사의 첨단 시설을 견학하며 정유공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기회로써 마련됐다. 신입사원 부모의 각 거주지에 박봉수 수석부사장 명의의 초청장이 발송된 가운데 서울·경기·전남·경북·경남 등에 거주하는 신입사원 가족은 사회인으로 첫걸음을 뗀 아들딸의 업무현장을 보기 위해 한달음에 온산공장으로 모여들었다.

행사는 공장 식당에 마련한 오찬에 이어 기술연구소 강당의 실내일정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회사 홍보영상을 관람한 뒤 공장 전반에 대해 개

략적인 설명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신입사원들은 부모님께 편지를 전하고 큰절 올리며 당당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돼준 부모와 가족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버스투어가 진행됐다. 신입사원 부모와 가족은 공장 지역을 차례로 돌며 대규모 첨단설비를 관심 있게 살펴보았다.

우리회사는 신입사원의 애사심과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신입사원 부모를 공장으로 초청해 회사의 미래 비전과 첨단설비를 소개하고 있다. 🌻

신입사원 부모와 가족 총 75명이 온산공장을 방문했다. 회사의 현황과 비전, 복지제도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첨단시설을 갖춘 공장을 견학하며 한가족으로서 소속감을 가지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글 이원정(대외업무팀)
자료제공 류진열(인사과)





“역대 최고의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 37명은 에스-오일 입사를 목표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지금의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희를 위해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부모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이번 초청행사를 통해

부모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최고의 회사에 들어왔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부모님께서서는 공장을 살펴보신 뒤 좋은 회사에서 일한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딸에 대한 걱정으로 안전을 더욱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하게 생활하고, 선배들을 잘 따르며 열심히 배워서 에스-오일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인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부모님께 한 가지 꼭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6주간 교육을 통해 저희는 에스-오일은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회사임을 확신하게 됐고, 최고의 직장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저희를 대견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우수한 인재 속에 저희를 선택한 것에 후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배님들이 일궈낸 업적을 이어 받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에스-오일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글 정찬형(제품운영1과)



S-OIL NEWS



제39기 정기 주주총회

우리회사 제39기 정기 주주총회가 지난 3월 21일 오전 10시 본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석태수 이사 주재로 진행된 이날 주주총회는 감사보고, 영업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에 이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포함한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기타 비상무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상정 의안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재무제표 승인 건에서는 지난해 총 매출 31조1천585억 원, 영업이익 3천660억 원, 당기순이익 3천893억 원과 주당 보통주 880원, 우선주 950원의 정기 배당을 반영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확정했다. 마하서 CEO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수요증가의 둔화로 전 세계 정유업계가 어려운 경영환경에 놓였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대규모 정비보수와 안정적 설비 운영, 긴축경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브랜드 가치를 높여 사상 최대 내수 점유율을 달성하고 고객 파트너십을 증대해 세계 30여 개국 이상 수출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는 창사 이래 최대 프로젝트로 더 큰 도약의 기회를 찾고자 한다”며 “모든 임직원이 힘을 모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주주의 신뢰와 성원에 보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화예술&나눔 캠페인 기부금 전달

‘문화예술&나눔 캠페인’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이 3월 18일 본사에서 진행됐다. 류열 수석부사장은 표재순 문화나눔네트워크 ‘시루’ 대표와 만나 기부금 3억5천만 원에 관해 지원 의사를 전하며 문화예술을 통한 뜻있는 나눔에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다. ‘문화예술&나눔 캠페인’은 사육을 개방해 공연·전시 등 공간으로 활용하고 공연 예술가들을 지원해 지역 이웃에게 열린 무대를 제공하는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2011년 마포 신사옥 입주와 함께 시작됐다. 올해 문화예술&나눔 캠페인 공연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저녁에 개최된다.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 수상

우리회사가 ‘제22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 시상에서 2개 부문에 걸쳐 상을 받았다.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은 국내 유일한 소비자 중심의 광고상으로, 소비자가 직접 작품을 현장 심사해 순위를 가린다. 시상식은 한국광고주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동 주최로 3월 27일 FKI타워(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컨퍼런스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이날 수상작은 총 397편의 출품작 가운데 광고전문가에 의한 1차 예심,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소비자심사단 100명의 2차 현장투표심사, 한국소비자학회를 비롯한 관련 학회와 소비자단체 대표로 구성된 심사단의 3차 최종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우리회사는 신문·인터넷 부문에서 각각 제호돌출광고 ‘영웅·환경이야기’와 환경 프로모션 ‘뉴트럴 스티커’로 좋은 광고상을 받았다.



문화교양강좌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의 미래’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의 미래를 다룬 문화교양강좌가 3월 26일 본사 대강당에 개최됐다. 이날 강좌는 한반도와 주변 4대 강국에 의해 형성되는 동북아의 최근 정세를 소개하고, 이 가운데 우리나라가 선택해야 할 방향과 우리회사가 주목해야 할 점을 짚었다. 강의를 맡은 김근식 교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특별 수행단, 대통령자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임원동정

보직변경

4.1 강석원 상무(법인영업/LPG부문 담당)→상무(국내영업본부 보좌역)

Site Preparation PM 임명

3.17 임덕순(Site Preparation Project Manager)

퇴임 및 Contract Staff 임명

3.31 강신기 상무(홍보부문 담당)→Contract Staff

입사

3.24 이영진 상무보(전략기획본부장 보좌역)

인사동정

보직변경

4.1 류효식 상무보(수도권지역본부장)→중부지역본부장 김준복(1급.법인영업팀리더)→법인영업/LPG부문 담당(대행/임시) 최유성(1급.아스팔트팀리더)→법인영업팀리더 임현조(1급.특수제품팀리더)→특수제품영업팀리더 이동연(1급.충청지역본부장)→동부지역본부장 김달호(1급.전라지역본부장)→서부지역본부장 이성제(1급.고양지사장)→중부지역본부 운영지사장 임황철(1급.울산지사장)→동부지역본부 운영지사장 이혁(1급.광주지사장)→서부지역본부 운영지사장 김명배(1급.경상지역본부장)→소매부문담당 보좌역 정희윤(2급.공주시지사장)→청주시지사장 박보원(2급.인천지사)→울산지사장 송희섭(2급.군산지사장)→광주시지사장 박석규(2급.청주시지사장)→중부지역

본부장 보좌역 신동현(2급.고객서비스팀)→유통기술팀 신진호(2급.전라지역본부)→소매관리팀 이동영(2급.아스팔트팀) 형을진(2급.특수제품팀) 최만영(3급.아스팔트팀) 김상범(5급.아스팔트팀)→특수제품영업팀 우동구(3급.소매관리팀)→수송팀 공진현(3급.대리점영업팀) 광기원(3급.전라지역본부) 탁현아(4급.대리점영업팀)→고객서비스팀 채승환(2급.대전지사 판매담당)→네트워크개발팀 김선근(3급.특수제품팀) 강석환(3급.부산지사 판매담당)→대리점영업팀 남승은(5급.네트워크개발팀)→네트워크강화팀 손순영(1급.수도권지역본부) 신보균 김민환 도상훈(2급.수도권지역본부) 임성수(2급.남양주시사 판매담당) 조희선(3급.수도권지역본부) 양선희(4급.수도권지역본부) 황창선(5급.수도권지역본부) 양수경(일반사무직3급.수도권지역본부)→중부지역본부 운영지사 천준길 박문석(2급.경상지역본부) 정영학 조성욱 김도형(3급.경상지역본부) 최동호(3급.대구지사 판매담당) 이동구(5급.경상지역본부) 최정희(일반사무직1급.경상지역본부) 조인혜(일반사무직3급.경상지역본부)→동부지역본부 운영지사 반기석 황남진(2급.충청지역본부) 신기섭(3급.충청지역본부) 박광수 송준용(2급.전라지역본부) 채만기(5급.전라지역본부) 이순영(일반사무직3급.전라지역본부)→서부지역본부 운영지사 정남욱(3급.고양지사 판매담당) 장호근(3급.수원지사 판매담당)→강남지사 판매담당 정상호(3급.고객서비스팀) 김성훈(3급.네트워크강화팀)→수원지사 판매담당 정동진(3급.고양지사 판매담당) 이태구

(4급.공주시사 판매담당)→인천지사 판매담당 조국현(2급.고양지사 판매담당) 정낙형(2급.충청지역본부) 박수병(3급.고양지사 판매담당) 윤석원(4급.고양지사 판매담당)→남양주시사 판매담당 김현식(4급.네트워크강화팀→충청) 조세영(5급.수도권지역본부)→용인지사 판매담당 김성우(3급.대전지사 판매담당) 이상훈(4급.경상지역본부) 박덕환(5급.경상지역본부)→대구지사 판매담당 최영필(2급.충청지역본부) 광창규(3급.공주시사 판매담당) 한승권(3급.광주시사 판매담당) 정현표(3급.목포지사 판매담당) 박관규(5급.충청지역본부)→대전지사 판매담당 조삼재(2급.청주시사 판매담당)→창원지사 판매담당 김대환 정성찬 박인재 이형섭(3급.군산지사 판매담당)→전주시사 판매담당 변수경(일반사무직2급.군산지사 관리담당) 배성진(5급.전라지역본부)→전주시사 관리담당 이인석(3급.전주시사 판매담당)→구미지사 판매담당 김용진(3급.군산지사 판매담당) 전영현(4급.군산지사 판매담당)→목포지사 판매담당 송현호(4급.군산지사 판매담당) 김복근(4급.전주시사 판매담당)→광주시사 판매담당 이병혁(3급.직영주유소관리팀) 박승수(4급.청주시사 판매담당)→부산지사 판매담당 황영기(4급.구미지사 판매담당)→안동지사 판매담당 이병석(3급.대전지사 판매담당) 오봉선(2급.공주시사 판매담당)→청주시사 판매담당 김병현(3급.아산시사 판매담당)→울산지사 판매담당 이성호 이정만(4급.공주시사 판매담당)→아산시사 판매담당 김장원(2급.수도권지역본부) 박찬필 오명국(3급.수도권지역본부) 이

병현(4급.네트워크강화팀-경북) 조성아(4급.고양지사 관리담당)→LPG팀 홍상우(2급.수도권지역본부)→LPG팀 중부LPG판매파트리더 지규환(2급.경상지역본부)→LPG팀 동부LPG판매파트리더(동부지역본부 운영지사 파견) 최철배(3급.수도권지역본부)→LPG팀(강릉지사 파견) 박종권(3급.경상지역본부) 김희달 이승상(4급.경상지역본부)→LPG팀(동부지역본부 운영지사 파견) 오진환(3급.경상지역본부) 박중희 박우권(4급.경상지역본부)→LPG팀(부산지사 파견) 김영호(3급.충청지역본부) 김용진(4급.충청지역본부)→LPG팀(서부지역본부 운영지사 파견) 이원규(3급.전라지역본부)→LPG팀(전주지사 파견) 김경식(3급.전라지역본부)→LPG팀(광주지사 파견) 송학석(2급.네트워크개발팀-수도권지역본부 파견)→네트워크개발팀(중부지역본부 운영지사 파견) 김찬주(2급.네트워크개발팀-경상지역본부 파견)→네트워크개발팀(동부지역본부 운영지사 파견) 김기환(3급.네트워크개발팀-충청지역본부 파견) 이승섭(3급.네트워크개발팀-전라지역본부 파견)→네트워크개발팀(서부지역본부 운영지사 파견) 조덕화(3급.고객개발마케팅팀-용인지사 파견)→고객개발마케팅팀(수원지사 파견) 서광덕(3급.직영주유소관리팀-경일주유소 파견) 권준한(3급.직영주유소관리팀-도봉햇살주유소 파견)→직영주유소관리팀 민경인(4급.군산저유소)→군산저유소(대전)

3.17 최시열(운전직검사부 검사1과)→Aromatics 생산1부 PX생산1과 홍해명(4급. Aromatics생산2부 PX생산2과)→품질관리부 품질관리1과 김현연(4급.유회생산부 유회유1과)→업무부 보안과 이동훈(운전직.제품운영부 제품운영2과)→인천저유소 관리담당 오동혁(운전직.분해3부 수소3과)→인천저유소 운영담당 이운세(4급.장치부 기계1과) 이영석(운전직.장치부 기계2과)→군산저유소

3.19 유승현(4급.장치부 예방정비1과) 송민근(5급.공무부 설계1과)→프로젝트건설팀 박갑동(5급.분해공정부 RHDS공정과)→공정Upgrading 추진부 HOU혁신1과

3.28 박도영(2급.자금운영팀)→자금계획팀 박

재홍(4급.자금계획팀)→자금운영팀

4.28 진형우(4급.품질보증팀)→품질관리부 품질관리1과 강두한 도홍식 정재욱(4급.품질관리부 품질관리1과) 김도영(운전직.품질관리부 품질관리1과) 김준목(4급.품질관리부 품질관리2과)→품질보증팀

2014년 대졸 신입사원(Non-Engineer) 부서배치

3.31 김태영→고객개발마케팅팀 양동조→엠버십마케팅팀 박정우→판매계획/분석팀 정성훈→네트워크개발팀 김경만→소매관리팀 박건욱→대리점영업팀 김현호 김재현 임성훈→소매관리팀 부 성정현→법인영업팀 홍윤기→해외운영팀 이민제→석유화학제품팀 이정현→석유화학운영팀 박상우→유회생산부 한아름→유회마케팅전략팀 김동휘→용성팀 최기원→업무부 경리와 김성준→업무팀 김건우→부동산관리팀 김태현→총무팀 김혜수→구매관리팀 김진형 주혜연→회계팀 김신형 장성제→신용관리팀 정영락→리스트관리팀 이지훈 김민철→인사팀 남상덕→복리후생팀 배진만→경영기획팀 최상원→IT기획팀 이민형→생산IT지원팀 우형진→감사팀 최수영→RUC관리팀

2014년 생산직 신입사원 부서배치

3.17 고병석→정유생산부 정유2과 김지윤→유회생산부 유회유1과 박성진→동력1부 동력2과 김연낙→동력2부 동력3과 한상욱→분해1부 수소1과 변민석→분해3부 탈황2과 정지환→분해3부 수소3과 김민욱 이갑상→분해3부 정유3과 박도현→Aromatics생산1부 Aromatics생산1과 김범준 이호준→Aromatics생산1부 PX생산1과 이동운→Aromatics생산2부 PX생산2과 정찬형 조치현 손영득 원기연 최치연 김민준→제품운영부 제품운영1과 이건오→제품운영부 제품운영2과 김용수 박정훈→장치부 기계1과 정도현→장치부 기계2과 김재연 최영륜→장치부 장치과 황태진→검사부 검사1과 박철웅 김대원 김중천 신철호 이준우 정우재→품질관리부 품질관리1과 조정윤→품질관리부 품질관리2과 황용민→공정자동화

팀 심범식→인천저유소 관리담당 김학훈 허현→인천저유소 운영담당

해외유학 파견 복귀

3.11 노진열(3급.인력개발팀 부)→해외마케팅 전략팀

채용

3.11 김문수(전임법무원.법무팀)

정년퇴직

3.31 유용진(1급.수도권지역본부장 보좌역) 김중선(2급.안전보건부 안전과)

퇴직

3.14 김진관(3급.구매팀)

3.25 김기태(3급.제품출하부 항무방재과)

부음

3.4 이해동(대외업무팀) 모친

3.5 김병훈(품질관리2과) 부친

3.7 배성학(기계1과) 조모

3.8 백병훈(인천저유소) 조부

3.9 박동민(인력개발팀 부) 부친

3.10 고병재(제품운영2과) 빙모

홍성민(해상출하과) 조모

3.17 석윤수(인력개발팀 부) 조부

3.18 이한진(기계2과) 부친

3.19 김효주(총무팀) 외조모

3.21 강주혜(고객개발마케팅팀) 외조모

박형근(정유Heavy제품팀) 외조모

3.27 정재훈(연차보수팀) 부친

박이흠(영업전략팀) 부친

결혼

3.22 김성준(고객개발마케팅팀)

3.23 손찬용(유회유1과)

3.29 김영만(네트워크시설팀) 딸

4.5 김판홍(정유생산부) 아들

박범준(네트워크시설팀)

4.6 정문성(수소3과)

4.12 백종원(감사팀)

4.26 주제일(장치과)

4.27 이진우(장치과)

9 Corporate Initiatives

- High margin portfolio through RUC and olefin investment
- Capacity expansion through overseas partnership
- On-going business innovation within core and beyond

• Brand market driven share gain in domestic market

- Overseas stable customer base expansion via partnership
- Global standard in SHE management
- Best-in-class operational excellence
- Strategic HR and mgmt. infra upgrade for performance drive
- Stakeholder communication enhancement



브랜드 마켓 중심의
내수 점유율 제고

진주지사



뜨거운 열정과 굳은 포부를 품고 9가지 전사전략과제 중 'Brand market driven share gain in domestic market(브랜드 마켓 중심의 내수 점유율 제고)'을 수행하며 회사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가는 '진주지사'를 소개합니다.

국내시장 제패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답입니다

진주지사



국내 영업환경은 유가하락과 공급과잉, 정부규제 등 좀처럼 성장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진주지사는 영업환경 악화를 타파할 적극적인 전략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해 도전할 각오를 다지고 있다.



“진주지사는 ‘브랜드마켓 중심의 내수 점유율 제고(Brand market driven share gain in domestic market)’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영업전선에서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우리회사는 국내 판매량과 시장 점유율 등에서 창사 이래 최고의 성과를 실현했다. 이것은 경제사정이 위축돼 영업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얻은 결과라 더욱 뜻 깊은 것이었다.

한 해 동안 전국의 각 지사들은 네트워크 확대와 판매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도전적으로 임해왔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 치열한 영업환경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박정용 진주지사장은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시장 수성을 위한 정유회사들의 각축전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회사는 2월에 도전적인 목표(Stretch Goal)를 설정해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진주지사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달성한다는 생각으로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則生 必生則死, 죽기를 각오하면 반드시 살고, 살려고 비겁하면 반드시 죽는다)’를 마음 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영업전략,
단단한 조직력으로 지역을 선도**

진주지사는 회사의 9가지 전사전략과제 중 ‘브랜드마켓 중심의 내수 점유율 제고(Brand market



“
목표에 대해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적극적인 영업전략,
최선의 노력이 더해질 때
치열한 국내시장에서
확실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
”

driven share gain in domestic market)’를 실현하고 있다. 그동안 진주지사는 우리회사가 영업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 2009년과 2012년 최우수 성과지사로 선정되고, 2013년 4/4분기 성과 우수지사로 꼽히는 등 탁월한 영업능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관할지역이 넓고 경쟁 주유소들의 점유율이 높은데다 대부분의 계열 주유소들이 농촌 지역에 많은 특성을 고려할 때 놀라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존 경쟁 주유소였다 알뜰 주유소가 생겨나면서 전반적인 상황은 좋지 못합니다. 그래도 진주지사는 전투적으로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어 경쟁 정유사들에 비해서 실적이 조금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주지사가 돋보이는 성과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이다. 하나는 거래처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로, 고객의 경조사와 관심사를 두루 챙기며 밀착관리하고 있다. 직원들의 수첩에는 고객들의 주요한 기념일, 가족관계, 개인 성향, 요청사항, 기억해두어야 할 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다. 흥금을 터놓을 정도로 가까이 지내다보니 지역 동향을 듣고 영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도 생긴다.

“거래처를 자주 방문·전화하면서 이야기를 듣다보면 때때로 가족보다 더 가깝다고 느껴지기

도 한다고 합니다. 불철주야 힘쓰는 직원들이 참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지요.”

또 하나는 최상의 조직력으로, 회사의 목표를 공유하면서 ‘혼자가 아닌 모두 함께’라는 진주지사의 영업방침을 적극적으로 맞춰가고 있다. 서로 가진 능력을 모으니 힘은 배가 되어 진주지사가 오래 동안 단골 우수지사로 꼽힐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는 것이 박 지사장의 말이다.

“영업인으로서의 친취적인 성격과 서로를 돕고 아끼는 협동심과 배려가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저마다 개성은 달라도 무엇이든 어울려서 하는 것을 선호하고 공통적으로 운동을 좋아해 모임도 주로 운동과 관련된 장소에서 가질 때가 많습니다. 탁구·당구·볼링·스크린 골프 등 빠지지 않고 좋아하죠. 매일 출근하면 직원들의 활기 찬 모습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2014년 시장의 주인공은 우리가 될 것이다

진주지사는 진주 지역을 비롯해 경남 서부의 넓은 관할지역을 관리하고 있다. 지역 특성으로 볼 때 관광지가 많아 여행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봄·여름·가을철의 판매량과 여행객들이 줄어드는 겨울철의 판매량 차이가 크고, 주로 외곽 지역에 계열 주유소가 자리해 있다는 점, 가족·친지가 함께 운영하는 주유소가 많다는 점이 타 지



역과 다른 점이다.
가격수준이 낮은 편이고 경쟁이 심해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진주만 보더라도 혁신 도시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경남 도청과 NH공사 등 대형 기관과 공기업들의 이전이 가시화 되면서 정유사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2~3년 사이에 전과는 다른 상황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우리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정 판매망을 확대하고 계열 주유소를 늘리는 데에 영업 포인트를 맞추겠다는 박 지사장은, “동절기 수요와 하절기 수요의 격차를 상향평준화 하는 일에 전력하겠다”고 말한다.
“거래처와의 관계를 강화해 혹시 모를 이탈을 막고, 독립 폴 주유소를 계열화하기 위해 영업력을 결집할 것입니다. 영업환경이 좋지 않다고는 해도 우리의 역량이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

MINI INTERVIEW



박 정 용 지사장

진주지사의 강점

무엇이든 함께한다는 일체감과 문제해결에 대한 진취적 태도가 장점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적이고 활기 넘치는 분위기가말로 진주지사를 존재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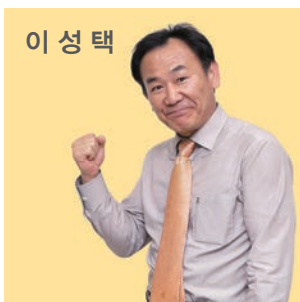
목표와 다짐

직원들이 저마다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솔선수범하는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얻을 때까지 의지와 열정을 불태우겠습니다.

진주지사 사우들을 소개합니다



박 정 용
지사장



이 성 택



한 상 훈



이 철 수



황 인 석



박 상 진



장 성 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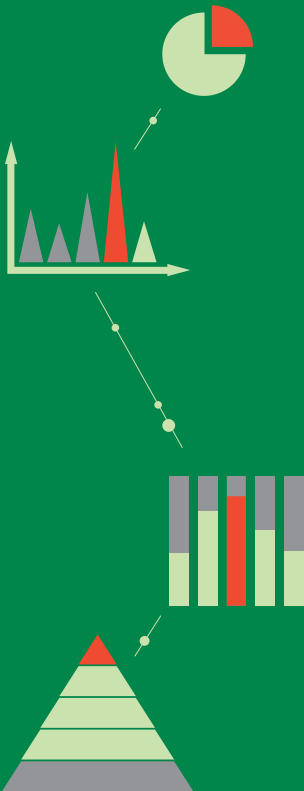


김 혜 정

회사 수익 창출에 앞장서는 영업인이 되겠습니다

마케터 워크숍

김현호
—
소매관리팀 부



소매관리팀이 주관하는 '마케터 워크숍'이 3월 한 달 동안 네 차례에 걸쳐 대림교육연구원(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서 진행됐습니다. 각 1박2일로 진행된 워크숍 가운데 신입사원으로써 3월 10~11일 일정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올해 국내영업본부의 목표와 전략, 제반 제도에 관한 이해를 증진하고 마케터 활동과 연관된 부서 업무를 배우는 기회로 개인역량과 업무효율성을 증대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또한 정보 공유와 친목도모의 장으로서 직무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이번 워크숍에서 본사 유관부서의 사내강사로부터 알찬 교육을 받고 2014년 영업정책에 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영업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통해 일선 업무의 어려움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사의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인'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첫날 교육시간 후에 이루어진 캔-미팅 시간 역시 기억에 남습니다. 지역본부와 지사에 계신 많은 선배들께 인사를 올리면서 신입사원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귀중한 조언을 듣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워크숍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려 합니다. 



아스팔트 시장은 우리가 선점한다

아스팔트 대리점 워크숍

최만영

아스팔트팀



올해 상반기 아스팔트 대리점 워크숍이 3월 21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는 아스팔트 대리점 임직원의 영업능력을 배가하고 회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시장수성에 힘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아스팔트 대리점 임직원과 우리 직원 등 30명이 모여 내실 있는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아스팔트 시장동향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판매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우리회사는 네트워크를 적극 확대해 안정적인 판매를 추진하고 대리점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내수점유율을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뒤이어 마련한 세일즈 매너 교육은 전문가의 강의로 방문 매너, 회식 매너 등을 학습해 영업활동에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가 됐습니다.

아스팔트팀은 이번 워크숍을 비롯해 대리점 대표자 간담회와 같은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폭넓은 영업활동 지원책을 마련해 대리점과 함께 성공적인 미래를 일궈나가기로 했습니다. 



산행으로 이어가는 정겨운 인연

퇴직자 산행 모임

김영희 前분해1부 소속



2012년 6월, 30여 년간 정들었던 회사를 떠나고, 같은 퇴직자인 배용길 씨와 함께 산행 모임을 만든 것이 '에·사·모(에쓰-오일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산우회'이다. 2012년 8월 1일 문수산 첫 산행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70여 회 정기산행을 다녀왔다. 간간이 국외 산행에 나서고, 많게는 열네 명이 동행했다.

산행은 대중교통 이용이 원칙이다. 대중교통은 40분 이내 혹은 2회까지 무료로 환승할 수 있는데다 근교 산으로 가기에 아주 편리하다. 울산 인근의 산들과 부산의 금정산과 장산, 경주의 토함산과 금오산, 그리고 솔마루길, 지리산 둘레

길, 어울길 등 참 여러 곳을 다녔다. 갓 퇴직한 사람부터 여든을 앞둔 형님까지 다함께 어울린다. 최고 연장자인 최학수 님을 비롯해 이희만, 박재현, 정영대, 신병원, 송노현, 신병원 님 등이 활발히 동참한다.

국외산행으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도 다녀왔다. 지난해 봄, 다시 계획을 세우고 6명이 출발해 아시아에서 가장 높다는 해발 4095m 산에 올랐다. 비가 내려 기상조건이 좋지 못했고 한밤중 산행인데다 고산증세까지 심해 모두들 두통약을 먹었을 정도였다. 산행인증서를 볼 때면 그때 힘들게 정상을 향하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른다.

지난해 가을에는 2박3일 일정으로 지리산 둘레길을 걸었다. 1구간부터 5구간까지 가는 사이 금계마을 민박집에서 퇴직자 이현성 씨를 만나 하룻밤을 함께 지내며 정담을 나눴다. 이렇듯 반가운 인연을 만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운동도 되니, 올해는

6구간부터 2박3일 정도 다녀올 생각이다. 봄에는 마른 나무에서 갓 피어나는 꽃이 예쁘고, 가을에는 오색단풍, 겨울에는 눈 덮인 산길과 아름다운 설경이 있으니 사계절 다 좋다.

에·사·모의 또 다른 자랑은 봉사활동이다. 같은 뜻을 가진 6명은 재직할 때 봉사했던 무료 급식소를 여전히 찾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봉사하다 올해 2월부터는 한 달에 두 번씩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퇴직하면 뭘 할까?'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는데 부딪쳐 보면 할 것도, 배울 것도 많다. 매주 좋은 친구들을 만나 산을 걷고, 주고받는 말에 너털웃음을 짓고, 새로운 이야기를 나누며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에·사·모의 좋은 인연이 오래도록 이어졌으면 한다. 🌿

에·사·모 인터넷 카페
<http://cafe.daum.net/s-oilesamo>

함께하는
산행으로
제2의 인생
전진!



큰 세상 향한 첫걸음 우리만의 여행

사우 자녀 제주도 여행수기

변우정 동아중3, 경리와 변규석 사우 자녀



자립심 일깨운 2박 3일 제주도 여행

2013년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나는 같은 반 친구 두 명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 부모님이나 가이드가 동행하지 않은 순수한 우리만의 여행이었다.

열다섯 살이라는 나이에 친구들과끼리만 여행하는 사람은 흔치 않다며 주위 친구들은 부러워했고, 숙소와 항공권 예약을 제외한 나머지는 계획부터 실천까지 모두 우리 몫이었는데, 이제껏 우리 셋만으로는 작은 프로젝트 하나도 해본 적 없어

걱정이 앞섰다. 더구나 여행은 동행자에게 많은 부분을 양보하고 서로 맞춰나가야 하는 일이라,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여행을 함께 떠나면 원수가 되어 돌아온다는 염려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됐다.

여행준비는 음식, 관광지, 교통편으로 나눠 했는데, 우리는 '먹기 위한 여행'으로 나름 주제를 정하고 그에 맞춰 준비했다. 시간을 알차게 사용하기 위해 아침 일찍 뜨는 비행기와 마지막 날 밤 늦게 도착하는 비행기를 예약했다. 첫날 새벽 5시에 일어나 친구들과 비행기에 올랐다. 너무 즐거웠던 것일까, 제주공항에 도착해서 버스를 타는데 방향을 잘못 알고 타기도 하고, 뜻하지 않게 눈을 보기도 했다. 그래도 마냥 들떠서인지 눈이 너무 좋아보였다. 우리는 미리 조사해온 맛집에서 고기국수를 먹은 뒤 사라봉공원에 들렀다가 예약해둔 숙소로 들어갔다.

다음날 우리는 버스를 타고 세 시간을 달려 서귀포 중문관광단지으로 이동했다. 그동안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마치 부산시내에서 일반버스를 타고 오가는 거리라 생각했는데, 시외버스를 타고 부산과 대구를 오가듯 떨어져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제주도가 새삼 크게 와 닿았다. 우리는 발품을 팔아 중문관광단지를 구경했다. 하루 종일 열심히 돌아다녀 너무 힘들었지만 보람찬 하루였다.

마지막 날 서우봉해변에서 허브 햄버거를 먹고 바닷가를 구경하러 나갔다. 내가 살고 있는 부산 바다와는 다른 느낌이었다. 정확하게 뭐라 말할 순 없지만 바닷물 색깔도 늘 봐오던 바다와 달랐다. 해변을 거닐다가 선사 유적지와 제주 항일기념관을 구경한 뒤 검은모래해변으로 갔다. 검은모래해변에서는 밀물시간에 물이 바로 앞까지 들어차 모래 한 번 밟아보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우리는 공항으로 향했다. 공항 수화물 보관센터에 짐을 맡기고 나서 전부터 꼭 먹고 싶었던 흑돼지고기 식당으로 향했다. 비싼 가격에 놀랐지만, 그래도 양이 많아 3인분을 시켜 셋이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다. 다시 비행기를 타고 김해공항에 도착해 피곤한 몸으로 경전철을 타고 집에 가는 동안에도 마지막까지 여행하는 기분을 느꼈다.

그렇게 여행은 끝났다. 개인적으로 얻은 게 있다면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여행의 방식'이다. 이전에 가족과 함께한 여행은 많이 보고 느끼기 위한 목적이었기에 계획도 치밀하게 세우고, 그만큼 열심히 움직였다. 이번 여행은 마음이 가는 데로, 발길이 닿는 데로 가볼 수 있었다. 선뜻 함께 나서준 친구들에게 고맙고 또 여행을 허락해 주신 부모님께도 감사드린다. 🌻

03
MARCH

‘햇살나눔’이 행복한 봄소식을 전합니다

2014년 3월 전사 각 단위 햇살나눔



17 생산기획부문

울산노인의 집을 방문한 봉사단은 독거노인 생활관 주변의 실내외 및 배수로 정비 작업을 하고, 실내 청소와 식사보조 활동을 실시했다.



본사 정기봉사팀

봉사팀은 서울 강서구의 등촌4복지관을 방문해 ‘사랑의 빵 만들기’를 진행하고 지역 내 독거노인 가정과 아동생활시설에 빵을 전달했다.

10

20

12

울산지사

봉사단은 울산중구사회복지관을 찾아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 및 수거 작업을 진행했다.



22

가족사진촬영봉사팀

봉사팀은 희귀질환 어린이 가정의 가족사진을 촬영하면서 구도일 인형과 패밀리록을 선물하고 액자와 앨범을 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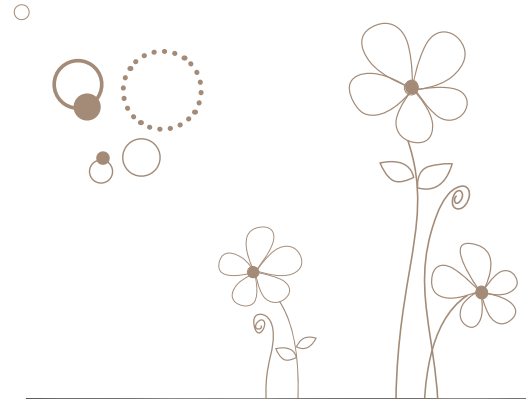


따뜻한 봄 날씨가 완연한 가운데 햇살나눔봉사단의 발걸음이 부쩍 바빠졌다.
새로운 봄소식을 전하며 손길이 닿는 곳마다 행복이 자라고,
발길이 머문 자리에 웃음꽃이 활짝 핀다.



안전환경부문

봉사단은 온산공장과 대한유화 사이의 그린웨이
입구에 모여 천연기념물 제65호인 목도로 가는
길의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계전부

29

봉사단은 우리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아동들과 함께
스트레스 알아보기, 공동체 게임
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5

30



27

문화예술&나눔 캠페인

본사 사옥에서는 지역 이웃에게 열린 무대를
제공하는 '문화예술&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개그콘서트가 열렸다.



봉사의 기쁨 통해 나눔의 행복 만든 시간들

중부지역본부 및 강남·강북지사 봉사활동



“
봉사활동을 통해
커다란 보람과 감동을 느끼고
소중한 추억도 쌓았다
”



지역본부·지사가 시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올해 중점 추진방향이 새롭게 수립된 가운데, 지난 3월 22일 중부지역본부를 비롯한 강남·강북지사 임직원 30여 명이 주몽재활원(서울시 강동구 상암로) 봉사에 나섰다. 이날 현장에는 신동열 부사장과 본사 임직원이 동참해 햇살나눔을 실천하며, 앞으로 시행할 다채로운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추진 의욕을 불어넣었다.

중부지역본부(舊수도권지역본부)에서 햇살나눔봉사단으로서 경험한 일관된 느낌은 '따뜻함'이었다. 이번 주몽재활원 봉사활동에 참여한 지역본부와 지사 소속 임직원, 국내영업본부장을 비롯한 본사 임직원 등 30여 명의 봉사단원들은 시종 함께하며 따뜻함의 깊이를 더했다.

저마다의 꿈을 그리며 가까이 다가간 시간들

지체·뇌병변 장애어린이 60명의 쉼터인 주몽재활원은 3층 높이 외관부터 내부시설까지 쾌적하고 깔끔한 모습이었다. 재활원 가족들이 삶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재활원의 마음 씀씀이가 느껴졌다. 그 덕분인지 봉사단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재활원 아이들의 사랑 가득한 모습을 마주할 수 있었다.

봉사는 15명씩 두 개조로 나뉘어 진행됐다. 오전에는 '가면 만들기' 시간으로 정했다. 재활원 가족들과 봉사단이 각기 짝을 이뤄 색깔 찰흙을 섞고 붙이며 가면을 만들어갔다. 몸이 불편한 가운데도 가면놀이로 해맑게 웃는 아이들과 함께하며 서로 위안을 주고받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뒤이어 각자 만든 가면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밝은 모습으로 저마다 의미를 꺼내놓는 아이들을 보니 가면 하나에도 꿈과 마음을 담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충만한 따뜻함으로 가슴 벅찼던 봉사활동

정오가 되면서 봉사단은 식사도우미 조와 청소 조로 역할을 분담했다. 식사도우미는 몸이 불편해 혼자 식사하기 어려운 이들 곁에서 맛있는 식사를 돕는 일이다. 봉사단은 밥 한술 한술에 애정을 담아 재활원 가족의 식사를 거들었다. 한편 청소를 맡은 봉사단은 벽면과 휠체어를 두루 청소하면서 재활원 가족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땀을 쏟았다.

아쉬운 작업의 시간이 오고, 소회를 밝히며 마무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햇살나눔봉사단은 물론 주몽재활원 가족 모두에게 행복한 시간이었다. 아이들과 나눈 따스함을 다른 이에게도 전하기 위해 햇살나눔봉사단 가족과 함께 더욱 열심히 봉사활동에 도전할 생각이다. '좋은 기름, 좋은 사람' 에쓰-오일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롭다. 



햇살나눔의 사랑이 훈풍 전합니다

햇살나눔 활동 이모저모

햇살나눔봉사단은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기부금 및 장학금 전달,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한 햇살나눔 이야기를 한데 모았다.



순직 공군 유자녀의 학업 돕는 장학사업

글 한윤철(운영지원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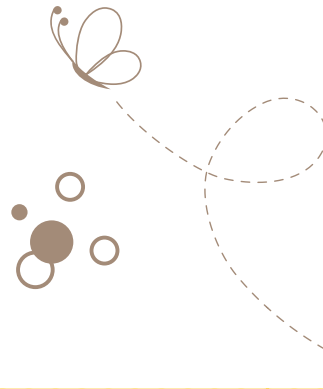
순직 공군 조종사 유자녀를 위한 장학금 기부 전달식이 3월 7일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치러졌다. 우리회사는 지난 2013년에 국방안보 기여를 위해 유류를 기부하고, 이와 더불어 공중군무 중 순직한 조종사의 유자녀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부했다. 이어 올해도 장학사업을 지속하기로 하고, 순직 공군 조종사 유자녀들이 자긍심을 갖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늘사랑장학재단에 2천만 원을 기부했다.



사회복지 지원을 통한 꾸준한 이웃사랑

글 심규역(대외업무팀)

우리회사가 2014년 '햇살나눔 사회복지 자원봉사 프로그램' 사업비로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에 1억4천4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3월 13일 울산시청에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올해 자원봉사 프로그램 사업은 지난 2월 공모에 접수한 43개 기관 가운데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23개 기관의 프레젠테이션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19개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이에 맞춰 공장 1개 부서와 사회복지기관시설 1개소가 일대일 결연을 맺고 연간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우리회사는 2011년부터 사회복지 자원봉사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 울산지역 사회복지시설·기관과 손잡고 적극적인 참여형 자원봉사를 펼쳐왔다.



서울지역 소외이웃에게 기부금 전달

글 신영철(운영지원팀)

서울지역봉사단 기부금 전달식이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서울지역 정기봉사기관 관계자를 초청한 가운데 3월 20일 본사 20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올해 우리회사는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측에 1억5천500만 원을 기부하기로 하고 서울지역 소외이웃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서울지역봉사단은 2007년 정기봉사 프로그램 가동을 시작하고 2009년부터 팀 봉사 프로그램을 확대 진행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 지난 2011년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봉사 프로그램 개발을 비롯해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며 사회공헌 활동 효율을 제고해 왔다.



학생의 소중한 꿈 키우는 장학금 전달

글 황창선(중부지역본부)

중부지역본부(舊수도권지역본부) 장학사업에 따른 올해 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3월에 본부와 9개 지사에서 진행됐다. 이 사업은 소속 직원들이 매달 자발적으로 내놓는 기부금을 모아 해마다 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나눔 활동으로, 2005년부터 10년 동안 지속돼 왔다. 중부지역본부는 연간 1천만 원 규모의 장학금을 조성해 학생별로 연 100만 원(분기 25만 원)의 학자금을 지원한다. 장학생은 지역 내 학교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뒤 자체 기준에 의거해 최종 선발된다.

사랑방 같이 오고 또 오는 주유소가 되겠습니다

전북 순창 사랑주유소

사랑주유소는 지역 주민과 고객들에 대한 따스한 애정을 바탕으로, 소소한 소식에서 크고 작은 정보가 오가는 특별한 역할을 해왔다. 이야기 나누는 재미에 한 번 두 번 찾아오다보면 어느새 단골이 되고마는 곳, 이름에서처럼 사랑과 정이 넘치는 사랑방으로 기억되고픈 주유소이다.

▲ 김은수 대표(왼쪽 두번째)와 직원들





김은수 대표

사랑주유소의 장점은

부지가 넓지는 않아도 순창에서 사람과 물자가 많이 오가는 개방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 소식을 나누며 세상 돌아가는 모양을 쉽게 알 수 있죠. 누가 봐도 반갑게 맞아주는 사랑방 같은 주유소입니다.

사랑주유소에게 직원이란

직원이야말로 보배 같은 존재입니다. 경영자가 아니라 직원이 돈을 벌어주는 것이죠. 종종 성과급을 주고 세차 금액이 쌓여 목표금액을 넘으면 보너스로 챙겨주는 등 대우에 소홀하지 않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2009년 5월에 문을 연 사랑주유소는 올해 5년째 됐다. 비교적 짧은 기간이지만 김은수 대표는 성실하고 친근한 성격으로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재빠르게 입지를 다졌다.

“위치로 볼 때 주유소를 열기에 좋은 장소였죠. 교차로에 있어서 통행량도 많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차량수요도 꽤 있었으니까요. 당시에는 주위에 6개의 주유소가 있어 경쟁이 심해지는 외종이었고, 반면 세차기 등 제대로 된 서비스 시설을 갖춘 곳이 없는 특이한 환경이었어요.”

김 대표는 치열하게 가격 경쟁을 하기보다는 정품정량의 품질을 믿고 지역밀착형 전략에 치중하기로 마음먹었다. 주유소 이름에서처럼 순창 지역의 사랑방이 되어 지역 동향을 앞서서 살필

수 있는 장소로 만드는 것이었다.

“주민과 고객들을 만나면서 요즘의 화두는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알음알음 소개를 통해 찾아오는 고객도 생기고, 호형호제하는 사이 단골이 되더군요.”

김 대표는 고객이 단번에 혹하는 특별한 서비스보다는 인간적인 친밀감을 중시하는 지역 분위기를 고려했다. 주민들의 대소사를 다지고 연 1~2회는 단골 고객을 대상으로 조출하지만 정성을 담은 사은행사를 하는가 하면, 여름철 보양식을 챙기는 등 확실하게 사랑주유소의 이름을 각인시켰다.

“처음에는 타 주유소들의 은근한 눈치가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주유소의 방식을 많이 따라하려

고 하는 것 같아요. 가격도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우리가 인근 주유소들의 경쟁을 선도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마음에서 마음으로, 진심을 전하는 주유소

주민들과 고객이 찾는 사랑방만 만큼 무엇보다 청결이 우선이다. 주유기와 화장실, 세차기와 자동판매기 등 손길이 자주 가는 곳은 하루에도 수차례씩 깨끗이 청소한다. 고객들이 사랑주유소를 찾는 이유 중에 다른 하나는 이곳만의 특별한 이벤트, 바로 족석 게임이다.

“주유소에 머무는 시간은 짧아도 서로 친해지다 보니 간단하게 뭔가 할 게 없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한 판에 1천 원으로 동전치기, 원 안에 동전 던지기를 하며 어울렸죠. 사실 조금은 잃어주기도 하니 만만치 않게 지출이 되더군요. 그래서 요즘에는 윗놀이로 종목을 바꿨습니다. 다들 너무 재미있어하더라고요.”

고객들과 막역한 사이가 되다보면 더러 경영에 무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사랑주유소는 외상 거래가 ‘0(제로)’이다. 외상 대신에 리터당 20원씩 할인해주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고객들도 김 대표의 의중을 알고 기꺼이 동참해준다. 앞서서 정성을 다하니 마음이 통하게 되고, 생각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초창기에는 주유기 사용법도 모르던 저였는데, 고객들이 많이 찾아주신 덕분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좀 더 열심히 일하고, 모든 성과는 고객들에게서 나온다는 생각으로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주유소



전라도와 경상도를 잇는 88올림픽고속도로와 가깝고 24번·27번 국도가 잇닿는 요지에 자리한 사랑주유소는 5년이란 비교적 짧은 기간에 확고히 터를 잡은 입지전적인 주유소이다. 고객들의 대소사 및 관심사를 두루 챙기며 얻은 단골이 많다. 지역사회의 동향에 가깝게 접근한 것이 사랑주유소의 성공 포인트이다.

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창로 269(남계리 170)
☎ 063-653-5135



희망 키워 행복 만드는 가족입니다

수소3과 이정민 사우 가족

이정민 사우가 가족을 위해 이벤트를 신청했다. 모처럼만에 오붓한 자리를 가진 이정민 사우 가족.
아내와 다섯 살 난 아들이 '우리 아빠 최고!'라며 엄지손가락을 보이자 어깨가 으쓱으쓱해지는 이 사우이다.



“
하나씩 하나씩
행복을 만들어가며,
웃음이 넘치는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

천방지축 부산한 아들의 손을 잡고 이정민 사우와 아내가 레스토랑으로 들어선다. 환한 조명과 시원스럽게 트인 공간이 조화된 이곳은 이 사우가 아내를 위해 염두에 뒀던 장소이다.

“봄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상징하는 계절이죠.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아픔의 계절이라는 말이 먼저 떠올라요. 이번 이벤트에 참여하게 된 건, 작년 봄에 사랑하는 딸을 잃은 뒤 그 빈자리에 힘들어 하는 우리 가족이 희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하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이벤트에 앞서 항상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의 아내였지만 지난 1년 동안 사람들과 만나는 걸 꺼려하며 지내던 터라 긴 설득을 예상했다. 처음에는 많이 당황했으나 용기를 내준 아내가 너무 고마웠다는 이 사우는, “아내도 큰 아이와 곧 태어날 뱃속의 아이를 위해 세상 밖으로 나가야겠다고 조금씩 마음을 다지던 터라 조심스럽게 허락했던 것 같다”고 말한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며 나온 자리였는데, 임산부와 유아에게 아주 적당한 웰빙 음식이 많아 다행이네요. 오랜만에 활기가 느껴지는 즐거운 가족 외식이 됐습니다. 이런 특별한 이벤트도 좋지만 늘 가족과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이름은 '가족'이다

스스로 '우리는 쿡썩이 잘 맞는 가족'이라고 말하는 이 사우. 예를 들어 족발을 먹자 하면 각자 좋아하는 부분이 달라, 아빠는 살코기를 즐겨 먹고 아들은 겁데기를, 엄마는 뼈 주위 고기를 좋아해 남는 부분이 없다고 너스레를 부린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긍정적이고 가족적인 가장이라고 말한다.

“가족의 일이라면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는, 가족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자상한 사람이죠. 눈치가 찌끔(?) 무딘 편이지만 저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남편이에요.”

이 사우는 조금 찢리는 구석이 있는지, 가족을 위해 약속 한 가지를 하겠다고 말한다.

“평소에는 아내가 주로 계획하고 저는 거기에 맞춰 움직이는 스타일이었죠. 말해주지 않으면 잘 모르는 스타일이었는데, 조금 더 자상하게 살 펴보는 가장이 돼 볼게요!”

서로 끈끈한 신뢰와 사랑이 느껴지는 이 부부는 천생인연이란 말처럼 연애시절도 달달했다. 이 사우가 총각 때 친구들과 경주로 드라이브를 갔다가 그곳 호텔리어였던 친구 애인의 사촌인 아내를 보고 단박에 반했다.

“제가 먼저 대시를 했지요. 처음에는 다섯 번만 만나 달했는데, 제가 별로 맘에 들지 않았는지 짧고 굵게 세 번만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래도 무조건 다섯 번은 만나야 된다고 고집을 부렸죠. 나중에 들었는데 아내는 네 번까지는 싫었는데 이상하게 다섯 번째 보니 정이 들더라며 그제야 마음을 열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가족 이야기

아내가 경주에서 기숙사 생활을 해 자주 보지는 못했어도, 쉬는 날 울산 본가에 올 때면 늘 버스나 기차를 타고 데리러 가며 소소하고 달콤한 연애를 했다. 주로 버스 데이트나 심야 영화 데이트를 많이 했으며 회상에 젖는 듯 빙그레 웃는다.

“그때는 직장도 신통치 않았고 차도 없어 아내를 고생시켰죠. 그래도 저를 믿고 지지해준 덕분에 우리회사에 취직도 하게 됐고 4년 연애 끝에 결혼할 수 있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경완이가 태어났다. 다소 적극적인 성격에 뒤집기부터 걷기까지 빠른 아이였는데, 호기심이 무척이나 왕성해서 지금까지 부순 물건들이 꽤 된다고 걱정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네 살 때 테이블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팔을 다쳐 여름 내내 깁스하고 있었던 일이었어요. 우리 부부가 너무 놀라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응급실로 달려갔었죠. 요즘도 무언가 시끄러운 소리가 가면 덜컥 놀라기부터 해요.”

마트에 가면 장남감 코너 대신 가전제품, 특히 음향기기 매장을 제일 먼저 가는 아이, 또봇이나 파워레인저 대신 ‘괘지나 칭칭나네’ CD를 사달라는 아이를 보며 걱정이 컸다는 부부는, 어느 부모들처럼 어른 말씀 잘 듣는 튀지 않는 아이가 되길 바라기도 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 바꾸니 전혀 걱정할 문제가 아니었고 ‘특이한 아이’가 아닌 ‘특별한 아이’라고 생각하니 저절로 해결이 됐다.

“내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지요. 그 바람이 생각과 다른 결과와 나왔을 때 속상하고 섭섭한 마음이 든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경완이 자신에게 행복한 결과라면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다짐했습니다.”



“
엄마 몰래 ‘캐러멜’을 나눠먹고,
‘뽀로로’와 ‘모여라 덩동댕 유치원’을
함께 보며 얘기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아빠가 될게요.”

우리 가족은 ‘수업중’이다

이제 5월이 되면 드디어 새 가족이 생긴다. 이 사우는 “건강하게 세상에 태어나 우리 가족 모두 그 벅찬 마음을 함께 누려보고 싶다”고 말한다.

“딸아이가 떠나기 전에는 잘 몰랐던 것이, 그저 금전적으로 풍요로운 것이 우선이고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이 있으면 행복인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뉘까지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짚어보니 그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었어요.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 그 풍요로운 마음을 세상에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진정한 행복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가족이 희망과 용기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는 그는 그동안 염려해준 동료, 선배들에게 감사의 말을 잊지 않는다.

“우리 가족은 수업중이에요. 힘든 일을 겪으면서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배워가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현명함과 따뜻함으로 세상을 사는 법을 가르치려고 해요. 이렇게 서로에게 배우고 가르치는 우리 가족은 ‘수업중’입니다.”



너무도 소중한 아내에게...

우리 삶이 항상 행복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 가족이 함께 있을 때만큼은 행복하게 해줄게. 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누며 사랑 가득한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

가족 생각 많은 남편에게...

그동안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당신, 무슨 일든 늘 맞춰가려 노력하는 당신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귀여운 개구쟁이 아들에게...

지금까지 아픈 적 없이 건강하게 자라주고 아빠엄마에게 웃음을 줘서 고맙다. 남을 배려하고 행복하게 일하는 경완이로 자라길 바랄게.

※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한 외식 이벤트에 사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신청 문의 sabo@s-oil.com

아들 부부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2009년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한 둘째 아들 태훈이가 국세청 사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세청에서 근무하는 아내를 맞아 올해 4월에 결혼합니다. 이에 아들 내외에게 마음 속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

태훈아, 민지아!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어도 잘 해쳐나가길 바랄게.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힘차게 나아갈 두 사람에게 몇 마디 당부의 말을 전하고 싶구나.

첫째, 형제와 우애 있게 지내길 바란다. 결혼하고 나서 동기간에 금이 가면 안 된다. 서로 양보하고 협심해서 잘 지냈으면 한다.

둘째, 자녀는 아들딸 구별 없이 둘 이상 낳아라. 국가 존망도 걸린 문제이니 잘 생각해 보거라.

셋째, 자기계발을 소홀히 하지 마라.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바뀐 세상에 제때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하게 된다.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자기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거라. 이 세 가지 부탁을 명심하고, '내가 먼저 웃겠다'는 여유를 가지며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란다. 🌻

아버지가

황홀한 봄의 정경 속

타박타박 걷는 즐거움

전남 완도군

‘청산도슬로우걷기축제’

청산도슬로우걷기축제

일시 2014년 4월 1 ~ 30일(30일간)

장소 전남 완도군 청산면 일원

완도연안여객선터미널에 도착해 배편으로 갈아타야 한다.
평일에는 8회, 주말에는 19회 배편이 있어 큰 불편은 없다.
소요시간은 45분, 차량도 도선 가능하다.

www.slowcitywando.com





쪽빛 바다, 노란 유채꽃, 푸른 청보리가 봄을 연주하는 청산도

청산도(靑山島)는 산도 바다도 하늘도 푸르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섬은 다도해의 수려한 풍광을 담고 있고, 물산이 풍부한 덕에 인심도 넉넉한 고장이다. 그래서인지 청산도는 산 좋고 물 좋다는 뜻에서 청산려수(靑山麗水)라 불렸다. 또 옛날에는 신선이 사는 천혜의 섬, 선산도(仙山島)라 부르기도 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청산도에 도착해 도청항 길을 따라 오른쪽으로 난 당리 언덕길을 오르면 유채와 청보리가 어우러져 있는 그림 같은 풍경을 만나볼 수 있다. 섬사람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돌담장과 구들장은, 옛 이야기가 있는 범바위, 독특한 장례문화의 상징인 초분 등 섬 고유의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섬이 청산도라는 생각이다.

몇 년 전에 필자가 청산도를 처음 찾았을 때 전복·멍게·소라·문어 등을 잡던 해녀들을 간간히 볼 수 있었는데, 지금도 다양한 연령층의 해녀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이곳도 여느 바닷가 마을처럼 해녀의 수도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그녀들의 애잔한 삶은 깊고 푸른 바다만큼이나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느리게 걷다보면 몸도 마음도 절로 힐링되는 축제

최근 돌레길 걷기, 도보여행이 새로운 여가문화로 떠오르면서 청산도 슬로길 또한 주목받기 시작했다. 2007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세계슬로시티연맹에서 슬로시티로 인증 받은 청산도는, 2009년부터는 아예 '청산도슬로 우견기축제'를 열고 도회지에 사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청산도 슬로길은 청산도 주민들이 다른 마을로 이동할 때 이용하던 길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바다의 해안선과 절벽을 끼고 도는 코스와 각 마을의 돌담장을 굽이굽이 돌아다니는 코스 등 모두 11개 코스인데, 짧게는 1.2km, 길게는 6.21km씩 총길이 42.195km로 되어 있다. 우연인지 마라톤 길이와 같은데, 아마 길이 지닌 풍경과 사람, 이야기가 어우러져 있는 아름다운 모습에 취해 절로 발걸음이 느려진다 해서 슬로길이란 이름이 붙여진 게 아닐까 싶다. 느긋한 걸음으로 영화 '서편제'의 무대였던 돌담길을 따라 걸어보고, 봄바람에 초록빛으로 출렁이는 청보리의 군무를 바라보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리랑 가락이 절로 나온다.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은 '청·산·완·보'로, 슬로길을 느리게 걷고(緩步), 웃으며 걷다(莞步) 보면, 어느새 완보(完步)하게 되는 길이라는 뜻이다. 슬로길 11개 코스의 중간 중간에 비치된 도장을 찍으면서 천천히 걷는 걷기

프로그램인데, 이를 정도 넉넉하게 일정을 잡고 도전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축제 프로그램에는 체험행사, 문화예술프로그램, 이벤트 등이 다채롭게 펼쳐지고, 명사와 함께 걷기, 서편제 자연 및 서편제 주인공처럼 걷기, 느낌보우체통 편지쓰기, 휘리(전통어로)체험, 소쟁기질 자연, 슬로장터 운영 등이 걷는 즐거움을 배가시켜 준다. 유채꽃과 청보리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4월, 청산도에서 일상의 피로를 씻고 행복을 충전하고 가는 것은 어떨까. 

청해진주유소



완도군에서 광주광역시로 향하는 13번 국도에 위치한 주유소로, LPG충전소를 겸하고 있다. 50여 년 간 완도 지역사회에 이바지해오며 2013년 챔피언스클럽 충전소부문, 2014년 챔피언스클럽 우수상에 선정됐다.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77(가용리 628)

☎ 061-552-4584

완도현대주유소



완도읍에서 화흥포항 방향에 자리 잡은 주유소로, 고정 단골이 많고 배달판매 비중이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꾸준하고 성실한 운영으로 지역 내에서 단골고객이 많다.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서로 163번길 61(망석리 696)

☎ 061-554-3100

목포지사
이재성 사주

걷기축제
오실 때 꼭 들려
주세요!



경기도에는 '평화누리길'이 있다. 김포(3코스)에서 시작해서 고양(2코스)과 파주(4코스)를 거쳐 연천(3코스)까지 잇는 총 189km 트래킹코스가 2010년 5월 일 반에게 개방됐다. 우리 땅이지만 지난 60여 년 동안 특별히 허가를 받지 않으면 밟지 못했던 DMZ를 따라 기존의 마을 고샅길·독길·산길·들길을 아울렀 다. 1·21무장공비침투로, 제3땅굴, 철도중단점, 애기봉전망대와 임진각 등 한반도의 갈등을 보이는 곳을 비롯해서 조선군 진영인 덕포진과 권율 장군의 얼 이 스며있는 행주산성, 율곡 선생의 체취가 담긴 화석정, 고려 태조의 위패를 모신 송의전 같은 역사유적지도 만날 수 있다. 이 가운데 평화누리길의 서쪽 끝 자락이자 첫 출발점, 강화해협을 흐르는 염하강 철책선을 따라 고샅길과 제방길로 이어가는 김포 평화누리길(김포길) 1코스를 걷기 위해 길을 나선다.

평화와 통일 염원하며 걷는 _____ 'DMZ 녹색생명 길'

평화누리길-김포 1구간



1.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에서 하성면 전류리 포구에 이르는 길이 39.3km의 '김포 평화누리길'은 명품 녹색길 중 하나로 웰빙시대 수도권 주민들로부터 최고의 명품길로 각광 받고 있다. 사진은 덕포진 파수청 옆을 지나 는 길손들의 모습이다.
2. 서울에서 한강물에 떠내려 왔다는 부레섬이 평온하게 떠있다.



코스

대명포구-덕포진-손돌목-원머루나루[高陽浦]-김포CC-통진휴게소-문수산성(남문) = 총 16.6km

▶ 5시간 소요

길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김포 평화누리길 1코스를 머리는 서해안 제철 생산들로 항상 넘쳐나 많은 사람이 북적이는 대명항이다. 대명나루를 향한 산줄기 모양이 이무기처럼 생겨 '대망'으로 불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대망<대명<대명'으로 구전되어 지금의 대명리로 굳었다. 김포의 명물로서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한 때문인가. 이제는 용이 되어 승천하는 활기찬 포구어시장과 함상공원 옆에 있는 '평화누리길' 아치를 지나면 바로 분단을 상징하는 철책선이 김포와 강화 사이를 흐르는 바다-염하강을 따라 북쪽을 향해 끝없이 이어진다.

주변은 적막한 비장함 대신 고즈넉한 우리네 시골 풍경의 일상이다. 철책 너머 해안가에는 배에서 떨어진 닻 몇 개가 펄 속에 덩그마니 박혀있다. 반면에 정돈된 평화누리길에는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20여 점의 설치미술품이 전시돼있어 잠시나마 평화와 통일을 염원해본다. 문득 뒤돌아보니 초지대교가 아른거린다. 다리 아래에는 길게 뻗은 바위, 일명 '속여'가 있다지만 밀물이라 보이지 않는다. 다만 감투처럼 생겼다는 '감투바위'가 갈대풀 속에서 수줍게 얼굴을 내민다.

남동에서 북서로 길게 돌출한 김포반도는 오랜 침식활동으로 낮아진 준평원과 한강을 타고 내려온 토사가 쌓여 발달한 충적지인 김포평야를 이룬다. 원래 백제 땅이던 김포는 475년 3만 군사를 이끌고 내려온 고구려 장수왕이 개로왕을 죽이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부터 역사에 등장한다. 삼국사

기 지리지 편에는 현재 김포시 일부와 검단면이 검포현(黔浦縣)으로 기록됐다. 검(黔)자가 '검다'는 뜻일 때는 '검'으로, 신명(神名)의 뜻일 때는 '금'으로 읽는다. 따라서 이곳은 '신(神)'이나 '존장(尊長)', '우두머리'가 다스리는 고을이란 뜻이란다.

구불구불 잔잔하게 이어진 토성길은 덕포진의 명품길이다. 염하강 저편에서 용두돈대를 만난다. 역사와 관광·안보·생태를 한 번에 만끽하는 매력 때문에 오히려 로맨틱하다면 지나친 감상일까. 길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파수청', 안내판은 이렇게 설명한다.

1980년 발굴하여 복원공사를 완료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이며 돌레에 맞담을 쌓듯 둘러친 석벽이 있었다. 고종 11년(1894)에 만든 소포 2문·중포 4문, 7개의 포탄 및 2개의 상평통보가 함께 출토되었다. 발굴된 대포 중 국립중앙박물관에 5문, 덕포진 전시관에 1문이 전시 중이다.

이 일대가 조선시대 진영으로 포대와 파수청이 있던 덕포진(사적 제292호)이다. 창설된 해는 조선 현종 7년(1666) 강화에 예속된 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서해에서 강화만을 거쳐 서울로 들어가는 길목, 천험의 지세를 이용한 군사요충지다. 숙종 5년(1679) 강화의 광성진·덕진·용두돈대와 함께 덕포진 돈대를 축성했다. '군사상은 강화 통어영에, 행정상으로는 통진에 속하여 첨사 1명과

수군 316명, 방선 2척·병선 1척·사후선 3척이 배속되었다. 객사 2칸에 내외진사 9칸과 삼문과 행랑이 10칸 반, 어변정 10칸이 있고 신미양요 뒤 무기고 3칸을 중건했다. 그리고 손돌항포대와 돈대 사이에 포병지휘소이자 포대에 불씨를 공급했던 파수청 4칸을 건립했다'고 통진읍지는 기록했다. 또한 김포읍지와 지도성책에 따르면 '1876년 봄 손돌항 포대 15기를 건립하여 국토통방시설을 갖추었다'고 적고 있다.

병인양요(1866)와 신미양요(1871) 때 각각 프랑스와 미국함대를 상대로 치열하게 격전을 벌인 이곳 언덕에 손돌의 묘가 있다. 염하강 건너 웅두돈대를 바라보면 중간에 유난히 흰 포말을 토하며 흐르는 물길이 손돌목인데, 다음의 스펀 이야기가 전한다. 1231년 몽고가 침입하자 고종은 화친하여 일단 회군시켰으나, 몽고의 2차 침입 때 조정을 이끌고 강화도로 천도한다. 사공 손돌의 배를 타고 여성강 벽란도를 거쳐 임진강과 한강하류를 지나 강화도로 가는 도중 지금의 대곶면 신안리와 강화도 광성진 사이의 해협에 닿았다. 이곳은 앞이 막힌 듯 보이므로 처음 가는 사람은 뱃길이 없는 것으로 착각한다. 뱃길이 없는 곳을 향해 노를 젓는 손돌을 고종은 의심하며 수차례 뱃길을 바로 잡도록 명하였다. 그때마다 손돌은 "보기에는 앞이 막힌 듯하나 좀 더 나아가면 트일 것이오니 께념치 마옵소서"라고 아뢰었지만 고종은 손돌을 의심하고 죽이라고 명했다. 죽음에 직면한 손돌은 임금의 안전항해를 위해 물에 바가지를 띄우고 "바가지만 따라가면 뱃길

이 트일 것"이라 알려줬다. 왕은 바가지를 따라 항해하여 무사히 협류를 빠져나왔다.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왕은 손돌을 후히 장사지내고 사당을 세워 넋을 위로했다.

'손돌목'은 '손돌의 목을 뱌 곳'이다. 그가 죽은 음력 10월 20일쯤 거세게 부는 바람을 '손돌이바람', 이 무령의 추위는 '손돌이추위'라고 한다. 조선 태조4년 조운선 16척, 태종3년 30척, 태종14년 60척이 침몰한 기록처럼 손돌목은 물살이 빨라 지금도 난파위험지역으로 손꼽는다.

손돌 묘 뒤편으로 내려오면 독을 쌓아 개간했다는 작은 마을이다. 예전에는 어선과 상선이 자주 들어왔기에 언제나 사람들로 흥청댔을 것이고, 때론 즉석으로 파시가 열리기도 했을텐데... 부래포구, 일명 덕포나루는 김포 1구간 중 유일하게 철책선 안으로 들어가 포구를 둘러볼 수 있다. 포구 안의 군초소가 비어있기 때문이다. 작은 배가 정박된 포구 건너편, 물 위에 살짝 떠 있는 작은 섬이 한강물에 떠내려 왔다는 부래도다.

'바스락'하고 부서지는 바위가 많다는 왜암리에 닿았다. 아직은 사람의 손때가 묻지 않아 깨끗함에 놀라고, 사람 손을 타지 않은 자연생태에 또 한 번 놀란다. 남쪽 해안에는 이곳 사람들이 '노루낭떠러지'라고 부르는 깎아지른 가파른 절벽이 있다. 아주 옛날, 사냥꾼을 만난 노루가 놀라서 이리 뛰고 저리 도망가다가 급기야 이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었다는 유래에서 생긴 재미있는 이름이다. 또 김포 사람들도 모르는 유명한 악수터, 바위 사이로 흐르

는 물인데, 평상시는 바닷물에 잠겨 볼 수 없고 물이 빠져야 보인다. 몽고군을 피해 온 고종이 물을 마셨다는 이야기와 함께 예전에는 피부병 치료에 효과가 좋아 멀리 타지에서 많이 찾아왔지만, 지금은 철책에 가로막혀 안타까울 뿐이다.

물 머금은 대지가 토해내는 푸릇함 속에서 봄나물 캐느라 분주한 아낙들의 손놀림을 뒤로 하고 따르던 철책 하단 콘크리트 벽에 작은 조각상과 알록달록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 길이가 대략 1km쯤 될까. 과거 강화도를 오갔던 원모루나루는 그 끝에 있었다.

김포에는 한강하류부터 이곳 염하강변까지 많은 나루가 운운됐다. 육로교통이 발달되지 않았기에 쇄골나루·감암나루·운양나루·전류리포구·신덕포나루·대명포구 등은 대량의 물자수송을 가능케 했다. 제법 규모가 큰 원모루나루 공무년에 흰



3. 원모루나루에 가기 직전 만나는 철책 벽화.
4. 김포길은 2010년 5월 처음 코스를 개발한 뒤 현재 3개 코스가 조성됐다.
5. 강화도와 김포 사이를 흐르는 염하강, 일명 강 화해협. 일품정취를 바라보고 있는 손돌의 묘. 매년 음력 시월 스무날에 제사를 올린다.



6



8



9



7

- 6 철책선에 전시된 20여 점의 설치미술품은 '평화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 7, 마을 고샅길·논길·제방길·해안철책을 걷는 김포길은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자연과 역사·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사진은 덕포진에 재현된 포대의 모습이다.
- 8, 포내천변에서 낚시를 드려온 강태공들.
- 9, 김포길 1구간은 염하강을 따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접할 수 있어 최고의 트래킹 코스다. 길손들이 김포CC 옆을 지나고 있다.

포말을 그리면서 어선이 들어온다. 어디를 갔다 오는 것일까. 뱃사람들의 애환과 숨결이 깃든 이곳, 지금은 군이 상주하여 허가된 어민 외에 출입은 철저히 통제된다. 근무를 마친 초병이 철책문을 나선 모습에서 30여 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복기해본다. 결론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없을 터, 씩씩한 웃음을 지으며 허름한 구멍가게 '할매집'을 만난다. "사람들 왕래가 잦지 않아 쓸만한 물건이 많지 않다"고 미안한 표정을 짓는 할매에게 캔 맥주를 주문한다. 어쨌든 다리침도 하고 갈증을 달

래기 위해서다. 이제 길 오른쪽으로 김포CC, 다소 긴장감이 풀리는 시점이다. 해병대 훈련장을 지나면서 지금까지 함께 길동무가 됐던 철책선과는 작별이다. 아스팔트 길을 따라 고갯마루에 서니 지금까지 걸어온 고양리와 쇠암리, 그리고 강화도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겠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대략 짐작만 할 뿐 가던 길을 내려 쫓아 포내천변에 이른다. 통진면 웅정리에서 시작해서 소하천 6개를 거느린 포내천은 야산을 끼고 감돌아 8km를 흘러 여

기에 모래톱을 만들고 포내리 염하강으로 흘러든다. 내를 곁에 둔 평야는 기름지다.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짓기에 환경적으로도 으뜸이란다. 늦게 떠나는 철새를 보고 멀리 있는 문수산을 바라보며 여유만만 넉넉한 길을 걷는다. 성격 급한 강태공은 벌써 천변에 앉아 낚싯대를 드리운 채 시간을 낚고 있다. 포내천이 끝나는 수문 앞, 지금은 폐쇄된 강화대교 아래를 지나 문수산성 남문에서 여정을 마친다. 🌿

한계를 넘어 최선을 다하는 것이 혼신이다

송유/동력공정과 이광동 사우의 롤모델
방송인 '유재석'

“
혀를 다스리는 것은
자신이지만
내뱉은 말은
나를 다스린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한 번 말한 것은
반드시 책임져라.
”



개그맨 ‘유재석’

글 | 이광동(송유/동력공정과)

“저는 신인시절부터 쭉 무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상은 서세원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받은 상과 연말 시상식 참여해서 받은 상, 두 개뿐입니다. 저는 밤마다 기도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준다면, 정말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한 번만 주어진다면 내 모든 능력을 다해서 보여드릴 수 있다고,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 이 모습을 그대로 꾸준한 마음을 갖고 활동하겠습니다.”

- 데뷔 7년 차 시절 유재석의 인터뷰

이름 하나만으로도 아무런 수식어가 필요 없는 대한민국 대표 MC ‘유재석’. 사람들을 잘 이끄는 유하고 강력한 리더십과 끊임없는 자기관리, 그에 못지않은 겸손과 매너는 유재석을 뒷받침하는 기둥이다.

나는 유재석의 여러 가지 장점 중에서도 끊임없는 자기관리를 본받고 싶다. 신입사원 때 패기 넘치던 각오로 여러 노력을 시도했고 좋은 결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해가 갈수록 점점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한다. “자신이 생각하는 범위에서만 최선을 다하면 안 된다. 그것을 벗어나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혼신이다”라는 유재석의 말처럼, 나의 발전을 위해 자강불식(自強不息, 스스로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것을 쉬지 않는다는 뜻)의 자세로 무한도전을 하고자 한다.



신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유재석은 1972년 서울에서 외동아들인 그와 여동생 둘이 가정에서 태어났다. 타고난 장난기가 많은 그였지만 엄한 부모님은 “남에게 절대 피해주는 일은 하지 마라”고 매일 같이 당부했다.

“참 재밌는 아이였어요. 소풍 때는 오락부장을 도맡았죠. 반면에 부모님이 워낙 엄격한 분이셔서 많이 혼나고 많이 맞기도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남에게 피해 주지 마라’며 왜 똑같은 얘기만 하나 싶어 답답할 때도 많았지만 그 덕분에 나쁜 짓은 안 하고 컸어요.”

친구들을 웃기는 걸 너무 좋아했고, 자연스럽게 개그맨이 인생의 목표가 된 유재석은 1991년 서울예대에 들어가자마자 KBS 대학개그제에 나갔다. 장려상을 받으며 데뷔했지만 금세 성공하리라 믿었던 그에게 길고 긴 무명시절이 찾아왔다.

“그때는 너무 건방졌어요. 어렸을 때부터 재밌다는 얘길 많이 듣다 보니 데뷔하는 순간부터 난리가 날 줄 알았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개그맨이 된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인데 그땐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무명생활이 시작됐어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채로.”

가뭄에 콩 나듯 띄엄띄엄 브라운관에 보이던 그는 1994년 영화 ‘티라노의 발톱(원시인 역)’과 ‘영구와 우주 괴물 불괴리(반장 역)’ 등에 단역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그의 말처럼 ‘노력하지 않고 늘 남 탓만 했던 시절’이었다.

“내가 못하는 것인데 ‘내 그릇을 너무 몰라주는 거 아니냐’며 단역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얼굴 숨기기에 급급했어요.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뭘 하면 재밌을까 애쓰기보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지 남 탓만 했어요.” 결국 1994년 말 군 생활을 하며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다. 불교 신자였던 그는 “평소엔 전혀 안 하던 기도를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매일 밤 간절히 기도했다”고 회상한다. 제대 후 그는 이렇게 결심한다. 서른 살까지 비전이 안 보인다면 다른 길을 선택하라는 계시인 줄 알고, 대신 그때까진 최선을 다해보자는 것이었다. 심기일전하며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며 술술 ‘저 녀석, 그래도 성실하네’라는 얘기가 들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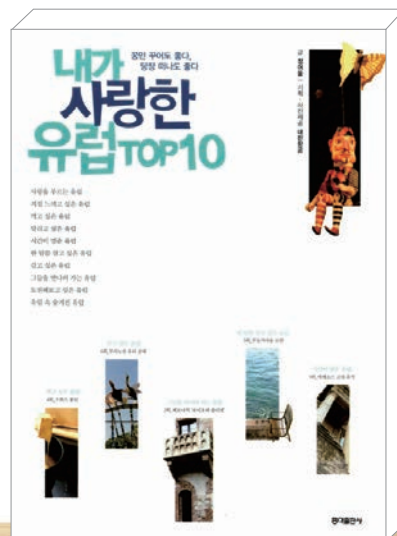
‘코미디 세상만사’와 ‘서세원 쇼’를 통해 차츰 인기를 얻은 그는 “개그는 공동작업이다. 야구에서 모두가 4번 타자라면 팀은 질 수밖에 없다. 팀 승리보다 일단 내가 뛰어야 된다는 생각밖에 하지 않는데...내 머릿속엔 오로지 주인공뿐이었다”라며 반성한다.

유재석은 지금도 가장 마음에 드는 별명은 ‘메뚜기’라고 말한다. 겸손과 성실, 배려의 리더십으로, 또 투철한 자기관리로 차근차근 전성기를 만들어 온 그는 ‘무한도전’을 비롯해 ‘해피투게더’, ‘런닝맨’ 등을 성공시키며 지금까지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훗날 “재 진짜 열심히 했어. 최선을 다했어”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유재석. 긴 무명 시절을 통해 얻은 각성을 늘 되새기며 최선을 다하는 그는 여전히 멈춤을 모르는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나를 찾아 떠나는

유럽 감성여행

정여울 <내가 사랑한 유럽 TOP 10>



“방금 이 책을 펼친 여러분과 함께
나는 또 무작정 떠나고 싶다.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 싶다.
반복되는 삶의 권태에 지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을 생애 최초의
첫눈처럼 눈부시게 바라보는 법을.
이 무한한 시간의 바다 위해
내 그리움의 닻을 내리는 법을.”

남쪽에서부터 들려온 꽃소식이 봄의 시작을 알린다. 설레는 가슴을 차마 진정시킬 수 없어 매화와 산수유를, 그리고 벚꽃과 진달래를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나는 이들의 얼굴에는 봄꽃처럼 환한 웃음이 서려 있다. 봄을 재촉하는 비 소식에도 이들의 가슴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다. 빗방울 촉촉이 맺힌 꽃잎을 보며 그리운 이를 떠올릴 수도 있을 테니까.

여행이란 그런 것이다. 권태로운 일상에서 벗어나 길을 찾아 떠나는 것만으로도 가슴을 설레게 하고, 낯선 도시의 낯선 풍경들이 영혼을 감미롭게 한다. 게다가 그곳이 저 먼 이국의 땅이라면? 10년간 유럽을 떠돈 정여울 작가의 마음도 그러했으리라. 본인 스스로 밝히고 있듯, 1년에 한 번씩 자발적으로 떠난 유럽여행은 예전에 미

처 몰랐던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다.

<내가 사랑한 유럽 TOP 10>은 그 흔적과 새로운 꿈을 만난 시간의 기록이다. 사랑을 부르는, 직접 느끼고 싶은, 먹고 싶은, 달리고 싶은, 시간이 멈춘 유럽은 작가의 감성 앞에서 날날이 제 속살을 드러낸다. 한 달쯤 살고 싶고 갖고 싶은, 그들을 만나러 가는, 도전해보고 싶은, 숨겨진 유럽은 작가의 감동과 만나 또 다른 꿈을 꾸게 한다. 모든 일이 처음인 듯 가슴 아프고 모든 것이 처음인 듯 신기한 낯선 일상들은 작가는 물론 독자들을 감동에 빠져들게 한다. 한 가지 아쉬움이라면, 이 프로젝트가 작가 본인이 아닌 대한항공과 33만 여행자가 선정한 테마별 베스트 여행지라는 것이다. 다수의 의견을 고려하였다는 점은 높이 살 만하나, 유럽을 10년 동안 드나들었던 작가만의 감성으로 풀어내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란 생각을 해본다. 신선했던 여행지 선정 의도와 달리 이도저도 아닌 여행지 소개가 되어 다소 아쉬움을 남긴다.

그러나 유럽여행을 계획하고 있거나, 두루 살펴보고 싶은 독자라면 얼마든지 이 책을 통해 떠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작가의 예리한 감성과 경험으로 풀어낸 이야기가 내면의 나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프라하의 석양을 보기 위해 카를교를 방문하거나, 한 편의 그림을 보기 위해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용기. 밤열차를 타고 대륙을 횡단하며 낯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내가 사랑한 유럽 TOP 10〉 이렇게 읽었습니다



배성민(정유공정과)

여행을 준비하며 정보를 수집하고 여러 책을 읽다 보면, 뭔가 이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에 유명한 곳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다니는 천편일률적인 계획을 짜게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여행을 준비하게 되면 여전히 똑 같은 준비를 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여행 책을 읽어봐도 유명한 여행지, 가장 최적화된 경로, 편하게 다니는 법 등을 소개하는 내용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시간과 돈을 쓴 여행을 허무하게 보내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계속 똑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책이 다른 책과 다른 점은 무엇보다도 여행을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행을 가서 받는 느낌도 다릅니다. 이 책은 다양한 테마로 저마다의 여행에 대한 욕구를 일깨워 줍니다. '사랑을 부르는 유럽, 먹고 싶은 유럽, 갖고 싶은 유럽, 시간이 멈춘 유럽' 등 자기 마음에 맞는 부분을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곳으로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으로 가서 무엇을 해야겠다'는 나만의 여행 목표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도 다들 비슷한 느낌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그때는 누구나 서툰 여행
최혜진 / 에디터

10년 동안 패션지 피쳐 에디터로 주도면밀한 완벽주의자로 살던 저자가 돌연 '서툴게' 살겠다고 선언하며 '미국해도 괜찮은 내면 여행'을 떠난다. 이탈리아 아말피 해안 도로부터 크로아티아 비밀의 숲 플리트비체, 프로방스 해변 등 8년간 유럽의 20여 개 도시를 넘나들며 여행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여행자의 인문학 노트
이현석 / 한티재

이 책은 스페인에서 인도까지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진지한 고민과 인문학적 시선을 담은 여행기이다. 저자에게 여행지는 낯선 세계를 배우는 공간이면서 타자의 존재를 통해 우리 내부에 벽을 무너뜨려 성찰한다. 또한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고민을 들여다보고 있다.



본 도서는 지난 3월 1일~31일 공장 자료실에서 높은 대여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도처에 유혹이 넘쳐나는 현대사회에 살면서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광고와 대중매체를 통해 쇼핑 충동을 느낀다. 영상과 소리를 통해 대대적으로 펼쳐지는 선전들은 우리 감각 기관을 강렬하게 자극하고, 사람들은 그러한 유혹에 쉽게 함몰된다. 이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 심리적 질환을 '쇼핑 중독'이라 부른다.

유혹과 탐닉의 동의어 '쇼핑(Shopping)'

쇼핑 중독



저명한 저널리스트인 토머스 하인이 쓴 <쇼핑의 유혹>에 의하면, 쇼핑 중독자들의 대다수는 자신의 외모가 좋아 보이면 내면 역시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보석, 옷, 화장품 등을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즉 빈약한 자존심에 뿌리를 둔 공허감, 소외감 또는 불만스러운 생활을 극복하려는 여성들의 독특한 대응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쇼핑 중독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신이 무언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자신감을 회복하고, 외부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신이 쇼핑하는 의미를 바로 보는 자세이다. 진짜로 물건이 필요한 것인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어떤 것에 대한 콤플렉스를 보상하려는 심리는 아닌지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 ‘행복은(또는 만족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자. 특별히 무엇을 더 하지 않아도, 무엇을 사서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면 쇼핑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다.

01. 쇼핑 중독의 원인은?

- 1 쇼핑 중독자는 주로 정신적으로 외로운 사람이다. 정신적인 상처나 열등감이 많아 쇼핑을 통해 공허감을 채우려고 한다. 그런데 대금 지불을 제때 못하면서 카드를 긁어 물건을 마구 사들이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사회문제까지 되는 것이다.
- 2 마음이 유약하고 환상과 낭만을 꿈꾸는 이들은 특정한 상품에 대해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옷, 화장품, 액세서리 등을 꾸준히 구입한다.
- 3 다양한 광고와 대중매체를 통해 본 장신구들은 상당히 자극적인 내용으로 유혹하고, 그러한 유혹에 쉽게 빠져든다.
- 4 쇼핑이 즐겁다가도 막상 영수증을 보면 자괴감이 들거나 새로운 반동 심리가 든다. 가령 모든 재산을 다 써버리는 것이 심리적으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02. 쇼핑 중독이거나 의심될 때 해결 방법은?

쇼핑 중독은 먼저 잘못된 쇼핑 습관을 고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 1 쇼핑 전에 꼭 구매 목록을 만들고, 구매 목록에 없는 물품은 무조건 사지 않는다.
- 2 카드 내역과 영수증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고, 주 결제수단을 체크카드로 바꾼다.
- 3 쇼핑할 때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있는 주변 인물과 함께 하도록 한다. 만일 이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병원에서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쇼핑 중독 자가진단표

	전적인 동의	약간 동의	보통	약간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 못함
돈이 있을 때 그 돈을 써야만 한다.					
충동구매할 때가 많다.					
쇼핑으로 스트레스가 풀린다.					
종종 쇼핑을 해야 할 것만 같다.					
충동으로 쇼핑하고 싶은 때가 있다.					
쇼핑 후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다.					
쇼핑한 것을 숨길 때가 있다.					
무언가를 사야 할 것 같은 충동이 자주 있다.					
백화점에 가면 쇼핑 욕구를 참기 어렵다.					
광고 메일에 반응한다.					
불필요한 물건을 사곤 한다.					
돈을 헤프게 쓴다.					
가끔 내 행동이나 말에 후회한다.					

※ 전적인 동의 5점, 약간 동의 4점, 보통 3점, 약간 동의하지 않음 2점, 전혀 동의 못함 1점으로 계산해 42점 이상이면 쇼핑 중독을 의심해야 한다.



독자퀴즈



두 사진 가운데 서로 다른 곳은
어디일까요?
(모두 다섯 군데)

지난호 퀴즈 당첨자

주유상품권

이종욱 Aromatics생산2과
김정훈 육상출하과
장봉석 예방정비1과
구근형 고객,서울시 서초구 바우미로27길

USB 저장장치

장범중 Aromatics생산2과
박홍양 분해2과
서영식 안전관리팀
김부옥 청량C주유소,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손 모아 만드는 사보 꿈 모아 그리는 내일

사보 편집실에서는 사우 여러분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개인은 물론 팀/과, 부/부문 단위의 소식을 알려주시면 뜻 있는 사료로서 기록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직원 개인과 가족, 팀/과 구성원 등 다채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사가 마련되어 있으니 사보 편집실의 문을 적극 두드려 주십시오.
사보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 또는 기념품을 드립니다.

문의 sabo@s-oil.com



〈주요소식〉 2014 생산직 신입사원

신입사원이 밝힌 포부, 열정 등을 읽으며 20년 전 내 모습을 보는 듯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모두에게 '파이팅'을 외칩니다. **조영식**(계기1과)



〈소식 모아보기〉 구도일 킨들러 드라마 간접광고 시행

SBS TV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후속으로 방송되는 '쓰리 데이즈'에 구도일 캐릭터가 등장해서 좋았습니다. **정신유**(고객.대구시 북구 관동중앙로)



〈가족 이야기〉 해상출하와 이경삼 사우 가족

가족 구성이 사연의 주인공과 같아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동생에게 좋은 언니가 돼야겠네요. **강주혜**(고객개발마케팅팀)

'우리 딸들도 잘 성장해서 아빠 엄마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여러모로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문원곤**(Aromatics생산2과)



〈가족 행복 발자국〉 김현제·김지윤 사우 결혼

갓 결혼하고 신혼살림 시작하던 때를 떠올리며 기사를 읽었습니다. **김용락**(수소3과)



〈건고 싶은 길〉 경북 영덕 블루로드

멋진 영덕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꼭 한 번 기사에 나온 코스로 걷고 싶네요. **김효주**(총무팀)



〈야호! 축제다〉 옥천 묘목축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니 기사에 소개된 묘목축제에 한번 가보려 합니다. **구근형**(고객.서울시 서초구 바우뒤편27길)



〈나의 롤모델〉 배우 차인표

직원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회봉사에 참여하며 더 큰 회사를 만들어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권민수**(성남햇살주유소.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열린 서재〉 정글만리

인기 있는 책 추천과 직원 서평이 책을 읽도록 이끌어 줍니다. **최성열**(고객.충북 청주시 흥덕구)



〈마음 읽기〉 담배 중독

금연 의지, 담배에 대한 오해, 금연의 경제적 효과 등 내용에 공감했습니다. **박재옥**(고객.서울시 도봉구 우이천로48길)



9 Corporate Initiatives

9가지 전사전략과제로
미래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니다

